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

장인성

지난 20년간 동아시아협력,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둘러싼 ‘동아시아론’은 한국 사회과학, 인문학에서 주요 담론의 하나였다. 동아시아론자들은 ‘동아시아에는 왜 나토와 같은 조직이 없을까’, ‘왜 EU와 같은 공동체가 성립할 수 없을까’,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허망한 것이다. 기존의 동아시아론은 논리적 합리성과 소망적 사고에서 성립하였다. 이러한 사고법으로는 동아시아의 갈등대립과 연대협력의 괴리를 해소할 수 없다. ‘동아시아’(‘동북아’)의 구축은 논리적 합리성에 의한 구상에 한정할 수 없다. 경험적, 역사적 합리성에서 성찰해야만 한다. 동아시아 지역 수준의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관계의 실태와 이에 관한 상상의 양태를 파악하는 방법론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19세기와 21세기 전환기의 한국에서 영위된,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존재양상을 둘러싼 동아시아 상상을 분석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이상적 상태에 관한 한국인들의 동아시아 상상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조건과 경험에서 형성된 한국 국제정치사상의 표현이다.

이 책은 제1부에서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개념, 구도, 동학을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국제사회’의 실제와 이념이 운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실제와 상상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세력균형/불균형의 구도 및 동학과 밀접히 결부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제2부에서는 19세기 개항기 ‘동양’의 국제사회와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상상을 아시아와 동양, 주권과 공공성, 균세(均勢)와 정립(鼎立), 동양과 평화, 인종과 정체성, 질서와 정의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21세기 탈냉전기 대립갈등과 연대협력이 교착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현실과 이상을 둘러싼 동아시아 상상의 내용과 특질을 문명과 문화 개념에 의탁하면서 해명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의 동아시아 평화구상은 세력균형의 정의론(규범론)적 이해에 기초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장인성(張寅性):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 국제관계론 전공에서 개항기 한일 국제정치사상에 관한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국제정치사상, 한일 정치사상사, 동아시아 개념사. 주요 저서로 『장소의 국제정치사상』(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근대한국의 국제관념에 나타난 도덕과 권력』(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메이지유신』(살림, 2007), 『서유견문: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에 관한 성찰』(아카넷, 2017),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등이 있다.